

## 소망의 언덕



최정원 목사  
광주신학교 총장

정대기 목사가 쓴 "당신은 혼자 아닙니다."라는 책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어느 신학교원에 출장할 때 조교가 있었는데 이 조교는 신학교원생이 아니라 경신대학원 생이었다. 조교는 키도 작고 외모도 그리 예쁘지 않았는데 인기는 최고였다. 50여 명이나 되는 대학원생들을 다독여주고 다른 사람들이 그 조교에게 상담 하는 것이었다. 분명히 보름 여자는 아니구나 싶어서 직사를 하면서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자랄 수가 있었는가?' '두 마디 말 때문이었어요' 그리고는 들려준 이야기.

"제 고향은 강원도 깊은 산골 하루 세 끼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어머니는 5살 때 불

수업료는 이웃교회 전도사님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졸업 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시골 고등학교 개교 이래 처음으로 서울 명문대학교 경신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이유는 단 한마디. "금주야 너는 보름 놀이 아니여."

평생을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시다가 94살 되던 해인 2013년에 돌아가신 숭실대 인법목교수님이 있다. 나는 신학교 다닐 때 이분의 에세이 집을 참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난다. 이분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사상을 연구한 사람이기도 하다. 8살 때 삼촌이 그렸다. "아! 병목아 너는 어찌면 그렇게 증명하고 기억력이 좋으냐. 너는 확실히 훌륭한 학자가 될 것이다." 8살 때 들려준 삼촌의 말이 68년이 지난 76살의 나이에 그 말을 하던 삼촌의 말투, 표정, 장소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느꼈던 느낌을 하나도 빠짐없이, 마치 어제의 일처럼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그 청친의 말이 오늘 나의 나를 만들었다."고 고백한다.

나는 책을 살 때 거의 온 라인에서 구입한다. 그래서 책 제목과 지은이 그리고 목차를 꼼꼼히 보기도 하지만 때로는 제목에 이끌려 또는 그 책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를 확인하고 싶어 무작정 구입하는 경우도 많다. 그중에 제목에 이끌려 무작정 구입한 책이 "단정한 말, 단단한 말"이다. 얼마나 솔직한 책 제목인가. 구입해서 받아 보니 절반은 그림에 절반만 짧은 글이 채워진 책이었다. 그런데 그 글이 진주 같아서 실수만큼 읽었는데 보석이었다. 이 책의 저자인 고정욱 작가는 소아비비로 인해서 중증 장애를 갖게 되었지만 각종 사회 활동으로 장애인에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 "단정한 말, 단단한 말"

생을 날다가 사망했고 아버지는 재기했는데 새 열마는 줄줄이 병생들을 낳았어요. 그러던 어느 겨울 날, 아버지는 도박으로 땅을 다 날리고는 농악을 먹고 자살 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계모 밑에서 쫓겨가게 가난한 생계를 했죠. 그 추운 겨울에도 양발 한 번 신어보지 못했고 기가 없어서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부를 마치고 힘없이 터덜 터덜 학교 운동장을 걸어 나오는데 누군가 축 처진 어깨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분은 별명이 열을 선생님이라고 불리 정도로 1년 365일 웃는 일이 없는 분이었는데 그 열을 선생님이 활짝 웃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금주야 너는 보름 놀이 아니여" 하면서 토닥거리 주었는데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어느 날 나를 만민해 본 친구들은 정소일지를 맡기고 모두 집에 가버렸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정소일지를 들고 교무실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담임선생님이 이웃 반 선생님과 나누는 대화에 귀에 들었습니다. "우리 반에 금주라는 애가 있는데 어려운 처지에서도 공부하겠다고 애쓰는 것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요. 그 애 얼굴만 보면 얼마나 기쁜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 날부터 나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우선 이상하게도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는 자신 있고 뽕뽕했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가는데 입학금이 없자 당황하게 면장님을 찾아가서 중학교 입학금을 꾸어달라고 했죠. 나의 당황한 용기를 기쁘게 여긴 면장님은 입학금을 꾸어주었습니다. 다음 번의

소개되어 있었다.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이 당선되어 작가가 되었고 현재 활동하는 작가 중에 가장 많은 책을 펴냈고(약 340권) 가장 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았으며(약 450만 부) 가장 많은 강연을 다니고(연30회) 있는 사람이었다. 몇 안 되는 글을 읽으면서 책 제목처럼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 책에 나오는 "사랑해"라는 글을 소개한다.

"사랑해"

벽돌과 벽돌은 시멘트가 붙여 줘요.  
깨진 그릇은 접착제가 붙여 주고요.  
나무와 나무는 못이 붙여줘요.

우리는 무엇이 하나로 이어 줄까요?  
한번 붙으면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우리들.  
사랑과 사랑을 단단하게 붙여 주는 말.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  
친구야, 사랑해.

선생님, 사랑해요!  
강아지 뽀빠도 사랑해.  
이 말로 우리는 짝짜지가 돼요.

"사랑해."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묵회산책



적인 현실은 교회가 스스로 팔보기 싫은 존재가 되어버렸음을 증명한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 엄숙하게 꾸짖기에 앞서, 스스로를 성찰하는 것을 게을리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화려한 건물과 양적인 성장에만 몰두했을 뿐, 세상의 정의와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며 본질에서 멀어졌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길을 이미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구하

우는 것,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겸는 태도를 회복함으로써 교회의 본질을 되찾아야 한다. 교회가 먼저 진실함과 겸손을 회복하고 정직한 삶을 살 때, 세상이 던지는 비판은 비로소 신뢰와 존경으로 바뀔 수 있다.

세상은 교회가 완벽하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위선이 아닌 진정성, 가식이 아닌 정직, 말이 아닌 삶의 변화를 통해 최소한 진실하려는 태도를 보여주시기를 요구한다. 기독교의 회복은

## 한국 교회의 위기와 본질 회복을 위한 성찰

회복하길 바라는 사회의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다는 역설적인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만약 사회가 교회를 완전히 포기했다면 무관심했을 것이나, 변화를 바라기에 질타하고 꾸짖는 것이다.

솔프게도 한국 교회는 분열과 다름이라는 어두운 길을 걷고 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서로 다른 진영에서 서로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기 일쑤다. 예수보다 정치적 논리나 집단의 이익을 앞세워 뿔고 뜯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본래 세상의 아픔을 치유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사회에 고통과 짐이 되고 있는 이 비극

시는 것이 무엇인지 선언했다. 그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웅장한 건물이나 값비싼 재물이 아닌, 성도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정직과 사랑과 겸손을 바라신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실 때 가장 강하게 꾸짖으신 대상이 겉으로는 경건했으나 속은 진실하지 못했던 위선적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다. 예수님의 질타는 전국은 오직 정직과 진실로 이루어진다는 분명한 선언이었으며, 거짓과 가식은 하나님 나라의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강조하셨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회복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는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정의를 세

구하는 구호나 대형 운동이 아니라, 각 성도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작은 진실에서 출발한다. 교회가 먼저 변화하여 본질을 회복할 때, 비로소 복음의 빛은 다시 세상 속에 힘 있게 비추게 될 것이다.



이한규 목사  
들꽃사랑교회 담임  
시인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도움, 일터에서 하나님을 만날까

직장인클럽 100일 묵상집\_3. 일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 우리의 일터에 심방 오시는 예수님

불꽃 속에서 지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심방을 오셨다. 그의 일터인 바닷가로 직접 찾아오셨다. 이른 아침, 베드로의 일터는 어수선했다. 반새도둑 고기잡이를 하고 돌아온 후여서 그물을 씻고 나면 이내 잠자리에 들어야 했다. 베드로는 피곤했다. 하지만 마을대로 쉴 수가 없었다. 수많은 루리가 해변을 메우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하필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고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우기를 요구하셨다. 그러니 배 주인인 베드로는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했다.

반새 일했지만 잠은 고기가 없어서 더욱 피곤했던 베드로였지만 끝까지 긴장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신 일종의 세팅이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피곤한가? 지친가? 그렇더라도 우리의 일터에 심방오신 주님을 외면하지 말자. 억지로라도 말씀을 들을 기회를 만들자.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든다. 말씀을 마친 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미 고기가 잡히는 지난 밤 내내 수없이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아 헛수고를 한 상태였다. 더구나 갈릴리 바다는 태양이 떠 있는 한 낮에는 깊은 물에 물고기가 머물지 않았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다 보니 그분이 보름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배를 몰아갔다. 한참 노를 저어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 베드로는 두 배를 가득 채울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이제 베드로는 고기잡이가 아니라 사랑을 낚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다. 우리도 일터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 일하는 사람의 기도

베드로의 일터에 찾아오신 주님, 오늘 저의 일터에도 찾아와주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일하게 하시고, 저의 일을 통해 사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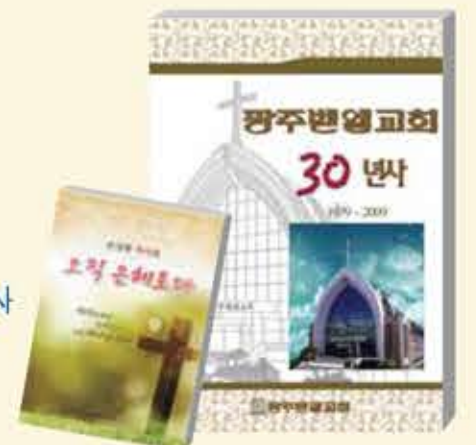
본지는 위 글을 저자와의 협의를 거쳐 연재한다 (원유일 목사 지음/도서출판 브너일)

## 당신의 인생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저서전 · 회고록 · 설교집, 교회사,  
요람, 사보, 교회소식지,  
동호회잡지 등 모든 출판물

도서출판 미션리

한 평생 앞만보고 달려왔습니까? 이제 잠시 멈춰 서서 달려온 인생길을 되돌아 볼 때입니다.  
틈틈이 기록해 온 글들, 오래된 책장피에서 푹 튀어나온 빛바랜 사진들을 보며 지난 시절을 떠올려봅니다.  
저서전, 회고록 등으로 자나니 삶의 궤적을 남겨 보십시오.  
도서출판 미션리 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설교집 · 교회사 · 사보 · 교회소식지 등 어떤 형태의 인쇄물도 언론사 경력 30년이 넘는 전문 편집진이 도와드립니다.  
원고정리에서 교정, 편집 디자인 출판까지 맡겨주세요



출판상담 정선화 편집장 겸 총괄이사 010-4602-7825

도서출판 미션리 TEL 062-367-9109, FAX 062-367-9108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69 (3층) / E-mail : phj2930@nate.com